

# 다도해 앞에선 누구라도 시인이 된다

진도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  
25~26일 ‘해변시인 창작학교’  
백일장·사생대회·공방 체험 등  
참가비 무료...오늘까지 전화 신청

진도에 자리한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대표 이지엽)은 시와 그림이 어우러진 박물관이다. 여귀산 미술관, 진도수석박물관도 가까이 있어 복합 문화공간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각가인 양두환의 유작 등이 전시돼 있어 문화적 힐링과 아울러 다채로운 예술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올해도 다도해와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진도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에서 ‘해변시인 창작학교’가 열린다.

이번 해변시인 창작학교는 진도인문아카데미와 계간 ‘열린시화’이 주최하며 25~26일 이틀간 열린다.

행사 기간에는 백일장, 사생대회, 시 특강, 방언 특강, 가야금산조, 국악동요, 진도아리랑 따라부르기, 박물관 관람, 공방체험, 꽃화본 만들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먼저 25일 오후 12시 30분에 백일장·사생대회 접수를 시작으로 입소식이 예정돼 있다. 이어 제2회 전국 백일장·사생대회(일반부, 학생부)가 진행된다. 올해도 미래의 문인들로 성장할 학생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

다음 순서로 정일근 시인의 특강이 펼쳐진다. ‘바다가 보이는 교실’을 주제로 정 시인은 감성적인 시의 세계로 참석자들을 안내한다.



해변시인학교가 25일~26일까지 진도에 있는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 등에서 열린다. 지난해 열린 해변시인학교 장면.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 제공>

소설가이자 박주연 향토사학자의 ‘진도사투리의 재미’를 주제로 한 특강도 펼쳐진다.

진도아리랑을 함께 따라부르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판소리명창 안정자와 5명과 함께하며 진도에서 부르는 진도아리랑은 색다른 감성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에그린한국시화박물관을 둘러보는 시간도 프로그램에 있다. 시와 소설 등 작품을 문인화를 비롯해 서양화, 조각 등으로 형상화한 작품을 둘러보며 예술적 감성을 충전할 수 있다.

밤 프로그램은 캠프파이어와 장기자랑이 펼쳐지며 1일차 행사가 마무리된다. 2일차는 오전 9시부

터 체험행사로 펼쳐진다. 숯대, 액자를 만드는 공방체험, 꽃화본 만들기, 애완수석 만들기 등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을 직접 만들어보는 기회를 갖는다.

한편 시인인 이지엽 대표는 “올해는 오프닝을 한 뒤 전국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먼저 가질 예정”이라며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과 시에그린 한국시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다채로운 미술작품을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해변 시인학교 참가비는 무료이며 희망자는 22일까지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속소는 죽림어촌체험휴양마을이며 인원은 50명 한도.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재즈 입은 ‘클래식’

‘리디안 팩토리’ 다음달 15일 광주예술의전당 ‘재즈&클래식’

한 번쯤 들어본 클래식 명곡들이 재즈의 자유로운 숨결을 입고 무대 위를 흐른다.

전문예술단체 ‘리디안 팩토리’는 오는 8월 15일 오후 7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재즈&클래식’ 콘서트를 선보인다.

리디안 팩토리는 재즈 피아니스트 강운숙을 중심으로 클래식, 재즈, 팝, 국악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시도를 해온 음악 그룹이다. 강운숙 피아니스트는 호남신학과대 백석대 음악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Musicians Institute KIT Encore 과정을 이수한 연주자로, 지역에서 활발한 연주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진숙한 클래식 작품들을 재즈와 탕고 등으로 재해석한 다채로운 레퍼토리로 꾸며져 관객들에게 이색적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바흐의 ‘인벤션 4번 D단조’와 ‘프렐류드 2번 C단조’로 시작된다. 구조적 아름다움과 리듬감 있는 전개로 유명한 이 곡들은 재즈 트리오 편성으로 편곡돼 역동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연다. 이어지는 ‘시칠리아나’와 ‘미뉴엣 G장조’는 각각 서정적인 선율에 라틴 리듬을 얹혀 부드럽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자아낸다.

클래식 애호가에게 익숙한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와 베토벤의 ‘비창 소나타’도 이번 공연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주된다. 라 캄파넬라는 라틴 리듬의 유희로, 비창 소나타는 보사노바와 차차리듬으로 편곡돼 새로운 정서를 입는다.

푸치니의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와 모차르



재즈 피아니스트 강운숙.

트의 ‘밤의 여왕의 아리아’ 같은 유명 오페라 아리아 역시 재즈 스타일로 들려준다. 성악 없이 악기만으로 감정을 전하는 이 무대는 클래식의 서사를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낸다. 마지막 곡은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으로, 민속적 선율과 흥겨운 리듬으로 공연의 피날레를 장식한다.

강운숙 피아니스트는 “클래식과 재즈 사이를 넘나드는 여정 속에서, 음악이 전하는 자유로움과 감동을 관객 여러분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초대.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해금 두 줄에 담은 ‘남도 소리’

국립남도국악원 26일 진악당

두 줄로 이어진 현이 품은 율림이 남도의 소리를 쏜다. 해금의 매력을 다채롭게 풀어낸 국악 공연이 진도의 여름 무대에 오른다.

국립남도국악원은 오는 26일 오후 3시 진악당에서 전주해금연주단 초청공연 ‘해금의 꿈: 남도소리’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매주 토요일 펼쳐지는 ‘토요상설공연-국악이 좋다’ 시리즈의 일환이다.

이번 공연에 초청된 전주해금연주단은 2005년 창단 이후 해금을 중심으로 다양한 창작과 협연을 시도하며 국내 전통현악 분야를 이끌고 있는 단체다. 오정무 단장을 비롯한 15인의 청년 해금 연주자들은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며 해금의 가능성을 확장해왔다. 이번 공연에서는 특히 남도지역 특유의 음악적 정서를 해금이라는 악기를 통해 새롭게 조명한다.

무대는 11대의 해금, 저음해금, 대해금이 어우러지는 합주곡 ‘남도굿거리’로 문을 연다. 개량 해금이 만들어내는 풍성한 음향과 리드미컬한 장단이 관객의 귀를 사로잡는다. 이어 육자배기 토리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지음’에서는 해금의 독특한 음색이 극적인 긴장감과 감정의 진폭을 섬세하게 표현한다.



전주해금연주단 연주 모습.

<국립남도국악원 제공>

소리와와 만남도 무대의 백미다. 판소리 ‘춘향가’ 중 ‘사랑가’, ‘심청가’ 중 ‘심봉사 눈 뜨는 대목’은 해금과 소리꾼의 대화로 재구성돼 전통의 깊이를 새롭게 선사한다. 특히 ‘흥타령에 의한 해금독주’는 해금의 다양한 기교와 음색이 돋보이며, 소리의 여백을 채우는 해금의 감성이 관객의 감정을 자극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누리집에서 확

인 가능하다.

박정경 국악원장은 “이번 무대를 통해 해금이가진 표현의 깊이와 전통음악의 현재적 감각을 함께 경험하길 바란다”며 “상반기 공사를 마치고 공연장을 재개관한 만큼 다양한 공연을 통해 국악이 일상 속 즐거운 문화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관람료 무료.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산다는 것, 참으로 아름다운 일

김영자 시인, 오늘의 시와사람 시리즈 170번째 ‘시꽃 물들다’ 펴내

‘오늘의 시와사람’ 시리즈 170번째로 발간된 이번 시집은 크게 자연과 일상을 모티브로 한 시들이 수록돼 있다.

1부와 2부는 ‘모란’, ‘봄빛’, ‘백목련’, ‘홍매화’, ‘버드나무’, ‘넋나무’ 등 자연이 주가 된 시들을 담고 있으며 3부와 4부는 ‘설날’, ‘화살’, ‘지과에서’, ‘목포대교’, ‘영랑생가’, ‘추억의 양동시장’, ‘피정’ 등 삶의 현장에서 마주치는 단상과 사유 등을 정감있게 풀어낸 작품들을 수록하고 있다.

김 시인은 이번 시집을 발간하게 된 데 대해 “살아간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며 “돌고 돌아 지금 문득 여기 서고 보니 지금 이 자리가 꽃자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전했다.

“지문이 닳도록/ 맨발로. 혼자 걷는다// 머문 그 자리가 편해도/ 굶하지 않고/ 밤마다 눈물 슬어가며//(중략) 먼 하늘/ 별빛 타고 온 목마름으로/ 기어오른 키 낮은 숨결// 절절한/ 푸리디푸르/ 저 함성.”

위 시 ‘담쟁이넝쿨’은 자신 앞에 놓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운명을 열어가 는 담쟁이의 이미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굽히지 않고” 끝내 “푸르디 푸른 저 함성”으로 이어지는 담쟁이는 화자의 삶일 수도 세상의 많은 장삼이사들의 삶일 수도 있다. 선명한 이미지를 시어로 형상화한 점이 눈길을 끈

다.

한편 박덕은 시인은 “매 연말마다 이미지 구현의 숨겨진, 그 효용성이 고개를 끄덕이게 한다”며 “시 창작에 있어 이미지 구현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평한다.

한편 김영자 시인은 이준열사 문학상 우수상, 빛창문학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현실문예창작회원, 광주문인협회 이사를 역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